

## 25. 코헬렛

코헬렛은 ‘설교자, 전도자’라는 뜻이며 ‘설교가의 설교를 모은 책’이라는 뜻으로 중국어 성경 이름을 따서 한 때 ‘전도서’라고도 불렸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설교나 전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과 반성을 통해 깨우친 삶의 지혜와 진리를 전해주는 철학이요 신학입니다.

코헬렛은 1,1에서 저자를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의 임금”인 솔로몬으로 내세우는데 라삐 전승에 의하면 솔로몬이 아름다운 여인들과 애정행각에 몰두하던 청년기에는 사랑의 노래인 아가를, 나라의 통치에 전념하던 중년기에는 지혜의 시 잠언을,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노년기에는 허무적인 시 코헬렛을 지었다고 합니다.

머리말, 본문, 맺음말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코헬렛의 본문은 “허무로다, 허무! 코헬렛이 말한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라며 허무로 시작하여 허무로 끝납니다. 그러나 저자는 결코 허무주의자가 아니라 오히려 삶을 예찬하고 삶을 즐기라고 가르칩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정해진 시기와 때가 있기에 삶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믿고 의식하며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신 삶을 고맙게 받아들이고 기쁘게 누리기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허무한 인생에서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인생을 즐기는 것이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우리 삶의 노고에 대한 몫이며, 불행한 날들이 닥치기 전 젊음의 날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조언합니다.

이처럼 코헬렛은 세상의 관조를 통하여 인생무상을 인식한 후,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일하고 먹고 마시는 평범한 일상을 꾸준히 해 나가며 그 안에서 살아있는 즐거움을 누리는 지혜를 노래하는 삶의 노래입니다.